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대인관계능력

박의정 · 정경순*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Nursing Students' College-Related Stress,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Skills

Park Euijeung, RN, Ph.D · Jeong Gyeongsun, RN, Ph.D*

Dept. of Nursing,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nursing students' levels of and relationships between college-related stress,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skills.

Methods : This study involved 352 nursing students at K University in B City, each who understood the study's purpose and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The study's data were collected between April 8 and 19, 2019 and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for Windows 22.0 program based on frequencies, percentage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as well as a t-test, analysis of variance, post-hoc test, and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The Scheffe test was performed for the post-hoc test, and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was employed for the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 College-related stres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ith self-efficacy ($r=-.310, p<.001$), social support ($r=-.312, p<.001$), and interpersonal skills ($r=-.226, p<.001$). However, self-efficacy exhibi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social support ($r=.548, p<.001$) and interpersonal skills ($r=.524, p<.001$), and social support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interpersonal skills ($r=.644, p<.001$). Therefore, higher levels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and a lower level of college-related stress result in corresponding higher levels of interpersonal skills.

Conclusion :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find measures to lower nursing students' college-related stress and increase their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as well as to develop and operate specific intervention programs that can help enhance their interpersonal skills.

Key Words :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life stress, self-efficacy, social support

*교신저자 : 정경순, sunck71@hanmail.net

논문접수일 : 2020년 7월 24일 | 수정일 : 2020년 8월 18일 | 게재승인일 : 2020년 8월 28일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대학과정은 미래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자율과 선택에 따른 책임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청소년기 학교생활과는 다른 대학생활에서 겪게 되는 새로운 인간관계, 학업문제, 진로 및 취업문제 등은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대학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Park & Jang, 2013).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엄격한 교육과정, 과중한 학업량, 학기중 병행되는 임상실습 수행 및 간호사국가시험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타학과 학생들보다 더 높은 대학생활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Choi & Lee, 2012). 이러한 스트레스가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으면 학생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Yoo, 2018). 수동적이고 의존적이었던 대학입학 전 학교생활과 달리 학사과정과 학교생활에서 변화를 겪게 되는 간호대학생들이 필요한 노력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과 자신감인 자기효능감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Jung, 2018). 선행연구에서 Kang과 Cho(2018)는 자기효능감 및 대학생활적응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간호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인관계와 대학생활 만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다(Jeon, 2016; Jeon, 2017; Lee 등, 2014). 또한 원만하고 성숙한 대인관계 형성을 대학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Choi, 2018).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 생리적 측면의 부정적 효과를 약화시키고 개인의 환경 적응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적인 완충제로서의 기능이 있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받아들이도록 강화시켜주는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Jeon & Yeom, 2014).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련성

을 조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적응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Kim과 Kim 2013),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wag(2013)의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았던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사회적 지지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적지지가 간호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직무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위기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한다는 연구가 있었다(Lee 등, 2012).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 및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인관계 능력은 타인의 마음이나 감정을 잘 이해하며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어울리며 문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장시간에 걸쳐 습득되며(Lim, 2018), 사회적, 경제적인 독립이 완성되지 않은 대학시기에 친밀하고 효율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면 고립감이나 공허감 등의 심리적 혼란을 겪게 된다(Kwag, 2013).

간호 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 형성은 성인 초기의 발달과제 수행과 함께 대학생활 적응과 향후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갈등을 해결하는데 중요하므로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다(Yu, 2019). 최근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은 자아정체감, 셀프리더십, 의사소통, 자기관리 역량, 대학생활 만족, 주관적 안녕감 등의 요인과 관련되어 진행되었으며(Lee 등, 2014; Yang, 2018; Yu, 2019),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 자아효능감, 사회적지지 변수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변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연구결과를 활용한 교육전략 모색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와 대인관계 능력 정도를 확인하고 변수 간 관련성을 파악하여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전략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대인관계능력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함이며, 궁극적으로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전략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와 대인관계능력 정도 및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시 소재 K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서면동의서에 서명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9년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 내용이 불충분한 것을 제외한 34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대학생활스트레스

대학생활스트레스 측정도구는 Chon 등(2000)이 개발한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척도를 Kim(2012)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하위영역은 장래 및 취업, 가치관, 학업, 경제로 구성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27문항과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함을 의미하며,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4 이었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Sherer 등(1982)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36문항의 척도를 Hong(1995)이 일부 수정하고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하위영역은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 Efficacy), 사회적 자기효능감(Social Self Efficacy)로 구성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23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긍정적 진술 10문항과 부정적 진술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진술문은 역환산하여 계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이다.

3)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측정도구는 Park(1985)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하위영역은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로 구성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25개 문항과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6이다.

4)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능력 측정도구는 Buhrmester 등(1988)이 개발한 대인관계 능력검사(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를 Kim과 Kim(2013)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하위영역은 처음 관계 맺기,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 자기노출, 정서적지지 및 조언, 대인 갈등 다루기로 구성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40개 문항과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7이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Vers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대학생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와 대인관계능력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와 대인관계능력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대학생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와 대인관계능력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간호대학생 340명 중 여학생은 295명(86.8%), 남학생은 45명(13.2%)이었다. 나이는 18~21세 188명(55.3%)으로 가장 많았고, 학년은 1학년 101명(29.7%), 2학년 85명(25.0%), 4학년 81명(23.8%), 3학년 73명(21.5%)이었다. 성적은 3.0~4.0이 221명(65.0%), 3.0 이하가 93명(27.4%), 4.0~4.5가 26명(7.6%)이었고, 한 달 용돈은 30만원 이상이 170명(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거형태는 가족과 함께 거주가 228명(67.1%)으로 많았다. 건강상태는 양호 140명(41.2%),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146명(42.9%), 간호학과 선택 동기는 취업이 용이해서 165명(48.5%)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Ⅲ. 연구결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4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45	13.2
	Female	295	86.8
Age	18~21yr	188	55.3
	22~25yr	102	30.0
	26yr or older	50	14.7
Grade	1st	101	29.7
	2nd	85	25.0
	3rd	73	21.5
	4th	81	23.8
Academic achievement (grade)	<3.0	93	27.4
	3.0~3.9	221	65.0
	>4.0	26	7.6
Average income	<300,000	66	19.4
	>300,000	170	50.0
	>500,000	104	30.6
Type of residence	With family	228	67.1
	Dormitory	62	18.2
	Alone	33	9.7
	With friends	17	5.0
Health condition	Very healthy	77	22.6
	Healthy	140	41.2
	Moderate	97	28.5
	Weak	26	7.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ontinue) (n=34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atisfaction of campus life	Very well	35	10.3
	Well	125	36.8
	Moderate	146	42.9
	Bad	21	6.2
	Very bad	13	3.8
Satisfaction of nursing department	Very well	45	13.2
	Well	131	38.5
	Moderate	139	40.9
	Bad	16	4.7
	Very bad	9	2.6
Department selection motivation	Job	165	48.5
	Aptitude	85	25.0
	Invitation	51	15.0
	Grades	11	3.2
	Other	28	8.2

2.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및 대인관계능력 정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2.25±0.59점이었고, 하위 영역 중 학업부분이 2.83±0.7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2.86±0.95점이고, 하위요인 점수에서 일반적 자기효

능감이 2.90±0.41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지지는 5점 만점에 평균 3.86±0.57점이고, 하위요인 점수에서 정서적지지가 3.95±0.6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 능력은 4점 만점에 평균 2.92±0.28점이고, 하위요인 점수에서 정서적지지 및 조언이 3.18±0.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2).

Table 2. Stress for college life, self efficacy,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relation (n=340)

Characteristics	Variables	M±SD	
Stress for college life	Future & employment	2.19±0.78	2.25±0.59
	Values	1.93±0.73	
	Academic	2.83±0.70	
	Economic	2.03±0.77	
Self efficacy	General	2.90±0.41	2.86±0.95
	Social	2.80±0.50	
Social support	Emotional	3.95±0.62	3.86±0.57
	Information	3.88±0.64	
	Material	3.71±0.63	
	Evaluative	3.91±0.63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irst relationship	2.84±0.34	2.92±0.28
	Claiming displeasure to others	2.86±0.41	
	Self exposure	2.85±0.40	
	Emotional support and advice	3.18±0.46	
	Dealing with interpersonal conflict	2.87±0.31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대인관계능력의 차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건강상태(F=3.55, p<.05), 대학생활 만족도(F=5.37, p<.01), 간호학 전공 만족도(F=5.47,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건강상태를 보통으로 느끼는 경우, 대학생활과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불만족인 경우 생활스트레스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기 효능감은 학년(F=5.04, p<.01), 성적(F=3.60, p<.05), 건강상태(F=4.07, p<.01), 대학생활 만족도(F=10.99, p<.01), 간호학전공 만족도(F=13.79, p<.01), 간호학과 선택동기(F=3.47,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건강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서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연령(F=4.60, p<.05), 학년

(F=4.51, p<.01), 한달 용돈(F=4.17, p<.05), 주거형태(F=3.08, p<.05), 건강상태(F=4.12, p<.01), 대학생활 만족도(F=12.16, p<.01), 간호학 전공 만족도(F=10.48, p<.01), 간호학과 선택동기(F= 2.78,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학년, 기숙사 이용, 대학생활과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만족인 경우, 적성에 의한 학과 선택인 경우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 능력은 연령(F=6.47, p<.01), 종교(F=2.82, p<.05), 학년(F=3.46, p<.05), 건강상태(F=4.34, p<.01), 대학생활 만족도(F=8.92, p<.01), 간호학 전공 만족도(F=6.80,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건강상태를 매우 양호하게 느끼는 경우, 대학생활과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만족인 경우 대인관계 능력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3).

Table 3. Differences in stress for college life, self efficacy,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relation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n=340)

Characteristics	Categories	Stress for college Life			Self efficacy			Social support			Interpersonal relation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Gender	Male	.85±0.59	.24	.62	1.49±0.43	.30	.58	3.69±0.54	.44	.50	2.93±0.22	.10	.74
	Female	.87±0.59			1.55±0.42			3.89±0.57			2.98±0.23		
Age	18~21yr ^a	1.84±0.60	.49	.61	3.57±0.43	.83	.43	3.95±0.56	4.60	<.05 c<a	3.01±0.22	6.47	<.01 c<a
	22~25yr ^b	1.92±0.62			3.51±0.39			3.79±0.56			2.94±0.22		
	26yr or older ^c	1.87±0.45			3.51±0.44			3.72±0.54			2.90±0.22		
Grade	1st ^a	1.87±0.56	.12	.94	3.64±0.46	5.04	<.01 d<a	3.99±0.57	4.51	<.01 d<a	3.02±0.22	3.46	<.05 d<a
	2nd ^b	1.90±0.57			3.59±0.40			3.92±0.58			2.99±0.23		
	3rd ^c	1.84±0.64			3.48±0.39			3.79±0.56			2.94±0.25		
	4th ^d	1.86±0.59			3.42±0.36			3.71±0.50			2.92±0.19		
Religion	Christian ^a	1.82±0.60	.91	.45	3.61±0.38	2.21	.07	3.90±0.51	2.25	.06	2.97±0.21	2.82	<.05 e<b
	Catholic ^b	1.67±0.48			3.65±0.36			4.04±0.60			3.02±0.23		
	Buddhism ^c	1.81±0.54			3.61±0.38			3.91±0.56			2.95±0.23		
	No ^d	1.89±0.59			3.52±0.43			3.86±0.57			2.98±0.22		
	Other ^e	2.15±0.43			3.19±0.41			3.27±0.57			2.70±0.28		
Academic achievement (grade)	<3.0 ^a	1.87±0.57	.50	.60	3.66±0.35	3.60	<.05 c<a	3.76±0.53	1.04	.35	2.93±0.18	1.34	.26
	3.0~3.9 ^b	1.85±0.60			3.57±0.44			3.90±0.56			2.99±0.23		
	>4.0 ^c	1.92±0.54			3.45±0.38			3.82±0.58			2.95±0.23		
Average income	<300,000 ^a	1.82±0.55	1.09	.33	3.64±0.43	2.50	.08	3.95±0.57	4.17	<.05 c<a	3.00±0.24	1.46	.23
	>300,000 ^b	1.84±0.61			3.54±0.39			3.91±0.53			2.98±0.22		
	>500,000 ^c	1.94±0.56			3.49±0.45			3.73±0.60			2.94±0.22		

Table 3. Differences in stress for college life, self efficacy,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relation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continue) (n=340)

Characteristics	Categories	Stress for college Life			Self efficacy			Social support			Interpersonal relation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Type of residence	With family ^a	1.89±0.60			3.52±0.42			3.83±0.59			2.96±0.22		
	Dormitory ^b	1.78±0.47	.58	.62	3.59±0.43	.76	.54	4.05±0.53	3.08	<.05	3.03±0.23	1.74	.15
	Alone ^c	1.85±0.73			3.60±0.43			3.87±0.46			2.97±0.23		
	With friends ^d	1.91±0.41			3.59±0.29			3.68±0.39			2.91±0.21		
Health condition	Very healthy ^a	1.69±0.59			3.67±0.43			4.05±0.63			3.05±0.50		
	Healthy ^b	1.90±0.56	3.55	<.05	3.54±0.41	4.07	<.01	3.82±0.50	4.12	<.01	2.95±0.21	4.34	<.01
	Moderate ^c	1.97±0.55			3.45±0.41			3.83±0.57			2.96±0.22		
	Weak ^d	1.93±0.72			3.54±0.36			3.68±0.60			2.92±0.21		
Satisfaction of campus life	Very well ^a	1.63±0.55			3.75±0.51			4.21±0.68			3.13±0.27		
	Well ^b	1.79±0.51	5.37	<.01	3.64±0.39	10.99	<.01	3.99±0.48	12.16	<.01	2.99±0.21	8.92	<.01
	Moderate ^c	1.91±0.57			3.46±0.36			3.76±0.54			2.94±0.20		
	Bad ^d	2.19±0.74			3.48±0.44			3.68±0.53			2.92±0.17		
	Very bad ^e	2.27±0.75			3.03±0.34			3.23±0.43			2.75±0.32		
Satisfaction of nursing department	Very well ^a	1.72±0.54			3.70±0.52			4.13±0.61			3.09±0.25		
	Well ^b	1.76±0.52	5.47	<.01	3.67±0.37	13.79	<.01	4.00±0.51	10.48	<.01	3.00±0.20	6.80	<.01
	Moderate ^c	1.95±0.58			3.41±0.35			3.71±0.53			2.93±0.21		
	Bad ^d	2.21±0.95			3.46±0.47			3.70±0.40			2.90±0.13		
	Very bad ^e	2.34±0.32			2.97±0.39			3.32±0.70			2.80±0.40		
Department selection motivation	Job ^a	1.92±0.60			3.70±0.51			3.81±0.53			3.09±0.25		
	Aptitude ^b	1.77±0.53	1.98	.09	3.67±0.37	3.47	<.01	4.03±0.51	2.78	<.05	3.00±0.20	.75	.55
	Invitation ^c	1.87±0.57			3.42±0.35			3.87±0.61			2.93±0.21		
	Grades ^d	2.19±0.91			3.46±0.47			3.66±0.71			2.90±0.13		
	Other ^e	1.75±0.49			2.97±0.39			3.78±0.67			2.80±0.40		

a,b,c,d,e : Scheffe's test

4. 간호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대인관계능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r=-.310, p<.001$), 사회적지지($r=-.312, p<.001$), 대인관계능력($r=-.226, p<.001$)과 유

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효능감은 사회적지지($r=.548, p<.001$), 대인관계능력($r=.524,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지지는 대인관계능력($r=.644,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는 높을수록,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낮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able 4. Correlation between main variables (n=340)

Characteristics	Stress for college Life	Self efficacy	Social support	Interpersonal relation
Stress for college life	1			
Self efficacy	-.310**	1		
Social support	-.312**	.548**	1	
Interpersonal relation	-.226**	.524**	.644**	1

** $p<.001$

IV. 고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대인관계능력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대인관계능력 함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그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25±0.59점으로 간호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Cha와 Lee(2014), Yoo(2019)의 연구 결과보다 낮고 Byun과 Park(2018)의 연구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활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학업이 2.83±0.70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치관이 1.93±0.73점으로 가장 낮았다. 학업 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간호대학생들이 타학과 학생들에 비해 이론 및 실습을 포함한 전공과목의 수나 학업량, 과도한 과제, 간호사국가시험 준비 등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학업 관련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선행연구에서 Lee 등(2014)의 연구결과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증진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나타내었고, Park(2020)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가 자기효능감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자기효능감은 고학년보다 저학년에서 성적이 높은 학생보다 낮은 학생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학년과 성적이 오를수록 학업 및 대학생활스트레스로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받는 것이라 생각되며,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리라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86±0.57점으로 Yoo(2019)의 연구 결과보다 낮고, Yang 등(2014)과 Noh(2017)의 연구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지지가 3.95±0.62점으로 가장 높았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는 연령, 학년, 용돈수준, 주거형태, 건강상태, 대학 및 학과 만족, 학과 선택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회적지지는 18~21세, 1학년, 기숙사 사용, 건강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회적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나타났으며, 대학 및 학과 만족도가 매우 좋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회적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나타났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학생에 비해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결과로 나타난 것은 친구의 지지가 중요함을 나타내며, 나아가 가족 및 교수로 구성된 높은 사회적지지를 받음으로써 간호대학생은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되며, 사회적지지를 높일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능력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92±0.28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ang(2018), Lim(2018)등의 선행연구보다 낮았다. 대인관계능력 하위영역별로 보면 정서적지지 및 조언 영역의 점수는 높고, 처음관계맺기 영역의 점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는 직업의 특성상 다양한 대상자들과 대면해야 하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조직 내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과 협력 관계를 이루어야 하므로 대인관계 능력은 임상의 직무현장에서 중요한 역량으로 언급되며(Yoo, 2019), 간호서비스 질 향상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범, 토의, 역할극 등의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대인관계 조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심 기울이기, 공감, 경청 등의 기법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Lee & Nam, 2014).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대인관계능력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대인관계능력은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지지가 낮은 원인을 분석·비교하는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고, 대인관계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및 환경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대인관계능력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위해 시도되었고, 그 결과 대학생활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대인관계능력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효능감은 사회적지지, 대인관계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지지는 대인관계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는 높을수록, 대학생활스트레스는 낮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와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Byun SH, Park HJ(2018). The relationship of life stress, anger, and optimism among nursing students. *J Korea Contents Assoc*, 18(12), 150-160. <https://doi.org/10.5392/JKCA.2018.18.12.150>.
- Buhrmester D, Furman W, Wittenberg MT, et al(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991-1008.
- Cha SK, Lee EM(2014). Comparison of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students of other major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4), 650-658.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4.650>.
- Choi HJ, Lee EJ(2012). Medi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students. *J Korean Fundam Nurs*, 19(2), 261-268. <https://doi.org/10.7739/jkafn.2012.19.2.261>.
- Choi SH(2018). Effects of ego resilience, interpersonal relation, and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college life adaptation of nursing students. *J Korea Acad Industr Cooper Soc*, 19(11), 148-156. <https://doi.org/10.5762/KAIS.2018.19.11.148>.
- Chon KK, Kim KH, Yi JS(2000). Development of the 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 Health Psychol*, 5(2), 316-335.
- Hong HY(1995). The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Master's thesis.
- Jeon HO, Yeom EY(2014). The influence of gender role conflicts, academic stress coping ability, and social support on adaptations to college life among male nursing students. *J Korea Contents Assoc*, 14(12), 796-807. <https://doi.org/10.5392/JKCA.2014.14.12.796>.
- Jeon HO(2016).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cademic failure tolerance and social self-efficacy on college life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2(2), 171-181. <https://doi.org/10.5977/jkasne.2016.22.2.171>.
- Jeon HS(2017). A study on professional self-concept, academic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 Korea Acad Industr Cooper Soc*, 18(12), 213-221. <https://doi.org/10.5762/KAIS.2017.18.12.213>.
- Jung IS(2018). A study on related factors of nursing students' self-efficacy, self-leadership and academic performance. *J Converg Inform Technol*, 8(5), 51-58. <https://doi.org/10.22156/CS4SMB.2018.8.5.051>.
- Kang KA, Cho HY(2018).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J Korea Acad Industr Cooper Society*, 19(3), 210-218. <https://doi.org/10.5762/KAIS.2018.19.3.210>.
- Kim JH(2012).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and health promoting lifesty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college students.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Master's thesis.

- Kim JU, Kim JH(2013).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attachment,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J Korea Contents Assoc*, 13(9), 248-259. <https://doi.org/10.5392/JKCA.2013.13.09.248>.
- Kwag YK(2013).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 Korea Acad Industr Cooper Soc*, 14(5), 2178-2186. <https://doi.org/10.5762/KAIS.2013.14.5.2178>.
- Lee AS, Yoon CK, Park JK(2012).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e on nursing performance of hospital nurses. *Korean J Occup Health Nurs*, 21(3), 283-289. <https://doi.org/10.5807/kjohn.2012.21.3.283>.
- Lee YS, Park SH, Kim JK(2014).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 college life satisfaction. *J Korea Contents Assoc*, 14(6), 229-240. <https://doi.org/10.5392/JKCA.2014.14.06.229>.
- Lee MR, Nam MH(2014).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the influencing factors in nursing students. *J Digi Converg*, 12(6), 509-517. <https://doi.org/10.14400/JDC.2014.12.6.509>.
- Lim MH(2018).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 differentiation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 Korea Acad Industr Cooper Soc*, 19(9), 225-233. <https://doi.org/10.5762/KAIS.2018.19.9.225>.
- Noh YG(2017).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actice stress, emotional labor and burnout among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Administr*, 23(5), 461-470. <https://doi.org/10.11111/jkan a. 2017.23.5.461>.
- Park DY(2020). The effects of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y on reality shock of nursing students. *J Korea Contents Assoc*, 20(4), 648-657. <https://doi.org/10.5392/JKCA.2020.20.04.648>.
- Park YR, Jang EH(2013). Impact of stress on depress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testing for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J Korean Adult Nurs*, 25(5), 549-558. <https://doi.org/10.7475/kjan.2013.25.5.549>.
- Park JW(1985).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Master's thesis.
- Sherer M, Maddux JE, Meracndante B, et al(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 Rep*, 51(2), 663-671. <https://doi.org/10.2466/pr0.1982.51.2.663>.
- Yang YK, Han KS, Bae MH, et al(2014).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ollege student of nursing. *Korean J Str Res*, 22(1), 23-34. <https://doi.org/10.17547/kjsr.2014.22.1.23>.
- Yang YK(2018). Influences of communication skill and interpersonal ability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Fundam Nurs*, 25(2), 99-108. <https://doi.org/10.7739/jkafn.2018.25.2.99>.
- Yu MO(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competen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self-Management competenc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graduation year. *J Korea Acad Industr Cooper Soc*, 20(7), 406-413. <https://doi.org/10.5762/KAIS.2019.20.7.406>.
- Yoo KH(2018). A study on the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4(3), 269-278. <https://doi.org/10.5977/jkasne.2018.24.3.269>.
- Yoo KH(2019). A mediator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association between stress for college life and depression among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5(1), 125-135. <https://doi.org/10.5977/jkasne.2019.25.1.125>.